

## 상악골내 감입 치아

아산재단 해성병원 이비인후과  
김현근 · 최석민 · 김일국 · 김중환

## = Abstract =

## A Case of Impacted Teeth in Canine Fossa of Maxilla

Hyun Keun Kim, M.D., Seok Min Choi, M.D., Il Kuk Kim, M.D.,  
Choong Hwan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Asan Welfare Foundation Haesung Hospital  
Ulsan, Korea*

Since the first description of the ectopic tooth by Albus in 1754, there have been reported many cases of either aberrant tooth in the nasal cavity and maxillary sinus.

The authors hav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the impacted teeth in the canine fossa of maxilla. 15 years-old female patient visited our department because of tender, palpable mass on the nasolabial area. Radiologic studies showed round well-circumscribed and calcified radiopaque lesion and then diagnosed impacted canine teeth. Surgical removal was performed successfully by Caldwell-Luc's approach.

**KEY WORDS:** Impacted tooth · Canine fossa.

## 서 론

치아는 태생기 혹은 생후 발달 이상으로 비강이나 상악동에 흔히 나타나며 치아 주위에 낭종을 형성하기도 한다. 1754년 Albus가 치아의 이상 위치를 보고한 이후 국내에서도 수례<sup>1, 4, 5, 6, 7, 8, 9)</sup>가 보고 된 바 있으며 위치 이전은 치아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저자들은 최근 과잉치아 없이 3개월간에 좌측 비순구 부위에 경도의 소양감 및 압통을 주소로 내원한 15세 여자 환자가 상악골에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악견치를 경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

증례

환자 : 김○영, 15세, 여자,

총진연월일 : 1994년 1월 4일

주 소 : 좌측 비순구 부위의 경도의 소양감  
및 악통

가족력 : 틀이사학 없음

### 과거력 : 틀이사항 없음

현병력 : 3개월전부터 좌측 비순구 부위에  
간헐적인 경도의 소양감과 압통을 주소로 특  
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본원 이비인후과 외

래에서 감입 상악견치 진단하에 수술 권유받고 입원하였다.

초진 및 검사 소견 : 양측 비강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좌측 비순구 부위에 완두콩 크기의 팽潤된 암통이 있는 둥글고 딱딱한 뎅어리가 촉진되었으며 구강내 치아수는 하나가 적었으며 치아의 배열은 비교적 규칙적이었다. 그외에 혈액, 소변, 간기능, 심전도 소견은 정상이었다.

방사선학적 소견 : Panoramic view(Fig. 1), PNS CT(Fig. 2)에서 둥글고 비교적 명확하게 경계가 지어진 석회화된 방사선 비투과성의 음영을 보였다. 상악동이 침범된 소견은 없었으며 상악동, 사골동, 접형동의 염증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후 Panoramic view(Fig. 3)에서 감입치아 제거후 둑근 방사성 투과성의 음영을 볼 수 있다.

수술소견 및 경과 : 좌측 상악골의 감입 견치 진단하에 1994년 2월 1일 Caldwell-Luc 술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견치와를 충분히 노출시켰는데, 견치는 약간 노출되어 있었다. 견치는 상악골의 견치와에 깊게 자리잡고 있어 쉽게 제거되지 않아 치아 주위를 약간 박리한 다음 치과용 Forcep으로 제거하였는데 상악동으로 침범된 소견은 없었다. 소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특별히 지혈하지는 않았으며 치아가 제거된 자리는 육아조직에 의해 채워질 수 있도록 다른 처치는 하지 않았다. 제거된 견치는 크기( $2.0 \times 1.0\text{cm}$ )와 모양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한 상악견치이었고(Fig. 4) 수술후 3일만에 특이사항 없이 되원하였다.

## 고 찰

치아가 치조를 벗어나 다른 위치로 미입해가는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Shafer 등<sup>12)</sup>, Thoma 등<sup>13)</sup>에 의하면 정상 수보다 많은 치아가 태생기에 그 위치가 전위되어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과 생후 염증성 변화로 치근의 전위가 일어나서 생기는 후천성 기형



Fig. 1. Preoperative panoramic view showing impacted canine tooth, compare with opposite site, into the base of alveolar process.



Fig. 2. Coronal scan of PNS showing 1cm-sized, radio-opaque density surrounded bony capsular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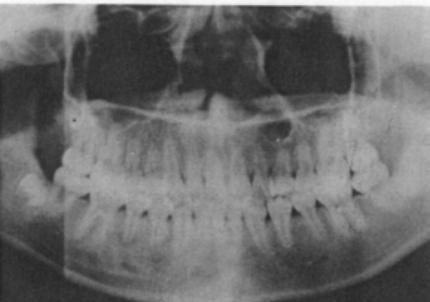


Fig. 3. Postoperative panoramic view showing emptied radiolucent bony cavity.



Fig. 4. Showing extracted canine tooth.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강, 상악동 등과 누공을 형성하거나 치성낭종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수가 많다. 이때 낭종은 양성이나 드물게는 악성 특히 법랑아세포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sup>11,15)</sup>. 저자들이 경험한 예에서는 상악동 침범이나 누공과 낭종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을 보면 국소적으로는 이웃한 치아로부터의 압력, 위치의 불규칙성, 오랫동안 지속된 염증으로 인한 점막의 밀도 증가로 인한 설명 할 수 없는 발치력의 소실을 들 수 있고 전신적으로는 유전적인 선천적 기형과 구루병, 빈혈증, 선천성 매독 등이 있으며 그외 드물게 쇄골두개형 성부전증(cleidocranial dysostosis), 첨두증(oxycephaly)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sup>10)</sup>. 본례에서는 치아의 배열이 비교적 규칙적이며 완전히 발육한 치아 상태로 보아 선천적인 원인으로 견차가 돌출되지 못하여 상악골 내에 미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발생빈도는 상악 제3대구치, 하악 제3대구치, 상악견치 순으로 나타나며, 감입은 상악이 하악보다 약 20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난다<sup>2,3,14)</sup>고 하였다.

Dachi와 Howell<sup>10)</sup>은 20세 이상의 3874례의 구내전악 X-선(full mouth roentgenogram) 17 %에서 하나 이상의 감입치아가 발견되었으며

상악 제3대구치가 22%, 하악 제3대구치가 18%, 상악견치는 0.9%이라고 보고하였다. 감입치아는 감염으로 인한 치관주위염, 급·慢성 치루농양, 만성 화농성 골염 등과 통증, 그리고 위치전이가 심하고 정상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며 낭종이 동반된 경우 악성변이의 가능성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 요약

최근 저자들은 15세 여자 환자에서 좌측 상악견치와 부위에 있는 감입 견치를 Cadwell-Luc 술식으로 제거한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김광세: 상악동 여포성 치아 낭종의 1종례. 한이인지 17(2): 129~132, 1974
- 2) 김기령·박인용·정진선: 상악동내 발생한 미입 견치의 1예. 한이인지 19(3): 61~63, 1978
- 3) 김은우·이형석·추광철: 상악동 여포성 치아 낭종의 2종례. 한이인지 18(3): 22~25, 1975
- 4) 문일영: 상악동내 유리치 1예. 한이인지 1(1): 42~44, 1959
- 5) 박인용: 여포성 치아 낭종 3예 및 우측 비강내 미입 치아의 1예. 한이인지 7(2): 53~56, 1964
- 6) 박정일: 비강내 미입 치아 1예. 한국외과학 7(8): 78~80, 1975
- 7) 신영철: 상악동 과잉역생 및 매몰치아 낭종의 1예. 한이인지 5(1): 23~26, 1962
- 8) 유방환: 거대한 치성 상악 낭종의 1예. 한이인지 9: 91~94, 1966
- 9) 이원태·박용구·안경성: 비강내 과잉치

- 의 3예. 한이인자 24(3) : 175~177, 1981
- 10) Dachi SF, Howell FV : A survey of 3,874 routine full-mouth radiography. II. A study of impacted teeth. Oral Surg 14 : 1165~1169, 1961
  - 11) Paparella MM, Shumrick AD : Otolaryngology, Saunders Co, Philadelphia, London, pp1949, 1991
  - 12) Shafer WG, Hine MK and Levy BM : A textbook of oral pathology. 3rd Ed., Sau-
  - nders Co, Philadelphia, London, pp34~80, 1974
  - 13) Thoma KH : Oral Surgery, 5th Ed., Mosby Co, Saint Louis, pp329~384, 1969
  - 14) Archer WH :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5th Ed., Saunders Co, Philadelphia, London, pp250~256, 1975
  - 15) Wuerhrmann LR and Manson H : Dental radiology, Mosby Co, Saint Louis pp 345~423, 1977